



AI 기업인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신임 회장

“AI 수요-공급 기업매칭 주력 전용 펀드로 기업 고평가 유도할 것”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신임 회장

“올해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AI 시대에 전 산업에서 AI를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 전통산업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저희가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 공급기업과 매칭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5일 임기 3년의 한국인공지능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된 김현철 회장은 올해 협회가 가장 중점을 둘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2016년 11월 협회 설립 당시부터 상임이사를 맡아온 김 회장은 그동안 협회의 굵직한 실무를 전담해왔고 이번에 추천을 받아 협회장을 맡게 됐다.

김 회장은 대학 졸업 후 AI 기술이 보편화되지는 않은 2011년 12월 발빠르게 AI 스타트업을 창립했다. 머신러닝 기술로 소셜커머스에 추천 알고리즘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설립했지만, 당시 저급처럼 AI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때라 투자 유치에 실패해 결국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멘털 힐링 분야 등에서 2개 회사를 다시 설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협회는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AI가 급부상하면서, 처음에는 AI에 관심을 가진 선후배 등이 AI 기술을 스타디하는 모임에서 시작됐

다. “스타트업 개발 실무자, 인지과학 전문가 등 지인들이 모여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AI 알고리즘을 공부했어요. 페이스북에서 멤버들을 추가로 모집했고, AI 오픈세미나를 개최했는데 AI 개발자, 기업 대표, 학부모 등 20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그렇게 기업인, 교육 관계자, 일반 대중까지 200~300여명이 모임에 가입하면서 협회를 출범했어요.”

AI 분야의 양대 협회 중 하나인 지능정보산업협회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스타트업만을 회원사(‘클러스터’로 지칭)로 받고 있다. 협회는 정부 부처 산하의 기업형 협회를 지양하고 스타트업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전통적인 협회들은 기업들에게 회비를 받고 있지만, 한국인공지능협회는 회비를 받지 않고 AI 엑스포 참여 할인 등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협회가 3~4년 동안 AI 콘퍼런스 등 행사를 100개 이상 주최했어요. AI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인공지능대전을 매년 대규모로 개최했고, 인공지능융합비즈니스경진대회도 매년 열었어요. 코리아 AI 스타트업 편람도 매년 편찬했지만, 지난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156개

수요산업 대상 AI기술 적용 조사 연말엔 대규모 ‘매칭 데이’ 계획

기업에 기술인증하고 특허 서포드 투자금 10억~100억 되도록 지원

韓기업 동북아 진출 발판 마련 빠른 서비스 상용화 강점 활용

기업을 소개했어요.” 100개 이상의 기업을 소개한 건 처음이다 보니, 벌써부터 올해 편람에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편람에 참여한 기업들은 협회에 자동 가입되고 후속 참가를 밝힌 기업까지 포함하면 250여개 기업이 협회에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톡에서 ‘인공지능 기업 클러스터 모임’을 개설해 주요 내용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올해 대규모 수요-공급 매칭을 위해 수요 산업을 대상으로 어느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어떤 기대 효과를 내는 지 수요 조사를 3~4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에요. 개별 기업별로 매칭해줄 뿐 아니라 연말에 대규모 ‘매칭 데이’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이후에는 ‘다나와’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수요와 공급기업 매칭을 자동화할 생각이예요.”

김 회장은 또 AI 기업들이 투자자들에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AI 전용 펀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펀드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투자사 및 중기부 등의 펀드를 활용할 생각이 다. “미국에서는 AI 스타트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30억원에서 300억원이 투자되는 게 현실이에요.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 기업에 저희가 기술인증을 해

주고 특히 지원 등을 통해 10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회사에 100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는 “AI 기업이 고평가를 받으면 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협회가 동북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일본, 중국 시장 등을 방문해 AI 기업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들을 진행해왔어요. AI 기업들을 모아놓으면 수요 사업이 자연스럽게 붙게 되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에이전시를 통해 일본, 중국의 AI 기업들과 한·중·일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에요. 일본, 중국의 수요 산업을 정밀 분석해 필요한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이 동북아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생각이예요.”

하지만 중국, 일본은 AI 기술력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선두 경쟁을 벌일 정도인데, 동북아 진출에 승산이 있을까. 그는 “창업 스타트업 등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픈소스 등을 활용해 빠르게 서비스 상용화를 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한국사회서 고립된 ‘습속의 왕국’ TK

“나는 노조, 촛불집회 이런 사람들 100퍼센트 반대고, 골수분자라고 생각한다. 말 많으면 빨갱이라 카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있을 때 대구경북은 잠잠했다. 감히 일개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왕을 끌어내리는 불경한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왕조시대 언어를 사용하며 흥분했다.

사회학을 공부했던 저자는 박근혜 탄핵 선고가 내려졌을 때 오랜 기간 마음속에 묵혀뒀던 박정희 토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습속’을 탐구하기로 결심한다. 저자는 나이, 계급, 젠더, 직업, 생활수준에 대한 표집틀을 세워 50~60대 대구경북민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경상도 중산층을 통해 대구경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저자는 경상도 사람들이 공동체주의 언어, 국가주의 언어로 시민사회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한다.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구경북이 아직 민주주의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대통령



대구경북의 사회학

최초희 지음/오월의봄

이 최고다.” 경상도 사람들은 박정희에 열광한다. “옛날부터 그렇게 자랐고 우리가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니까.” 대구경북은 보수정당의 표밭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의 한남 스타일은 최악이라. 여자 위에 군림할라 카고.”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가부장적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휩쓸린다. 경상도는 민주사회와 평행선을 이루며 한국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다. 저자는 “평범함이 악이 되는 이유는 사악한 습속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자신이 속한 대구경북 지역이 ‘습속의 왕국’이란 점을 자각한다.

416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iki@

맨 얼라이브

토머스 페이지 맥비 지음/김승욱 옮김/북트리거

트랜스젠더 남성인 토머스 페이지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페이지에서 토머스로 변화해 지금에 이르게 된 여정을 책에 담았다. 기자이자 방송 작가인 저자는 “무엇이 남자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사회에 던지며 트랜스젠더 남성이라는 자신의 삶에 직접 렌즈를 들이댄다.



240쪽. 1만5000원.

무엇을 놓친 걸까



제품이 좋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건 아니다. 세계적인 기업 유니레버, 디아지오, 티 모바일 등에서 25년간 마케팅 책임자로 일해온 저자는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뇌를 사로잡으라”고 조언한다. ‘12퍼센트 할인 vs 1인당 최대 12개’, ‘기름기를 75% 뺐 vs 지방을 25% 함유한’ 커피 문구로 쓴 단어 하나 때문에 제품 판매율이 50% 오른다. 어떤 광고가 더 효과적일까. 324쪽. 1만8500원.

4차산업혁명 기술 ‘전파’ 제품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대 4000만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전파’를 활용한 우수기술 제품의 상용화 및 전파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전파산업 중소기업 제품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연결·지능화 시대의 핵심자원인 전파의 활용이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전파 기반, 전파 융·복합 신산업 분야의 제품화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3일부터 28일까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 비율 최대 70%, 기업 부담 비율 최소 30% 형태로 매칭해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4차인재 양성사업 직무훈련생 530명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4차 인재 양성사업’ 2020년도 상반기 직무훈련생을 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만 34세 이하 학사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분야의 출연(연) 현장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수요 기업, 연구기관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8개 출연(연)이 참

여해 ‘소재·부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포함한 38개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올해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720명이 대상이며, 상반기에는 530여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훈련생들은 4월부터 6개월간 직무훈련에 참여해, 해당 출연(연)의 첨단 연구시설, 고급 연구인력, 기업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R&D) 연구현장의 이론·실무 교육을 거쳐 산업 현장 파악과 실무 경험을 위한 기업 현장 연수도 받게 된다.

/채윤정 AI전문기자